통일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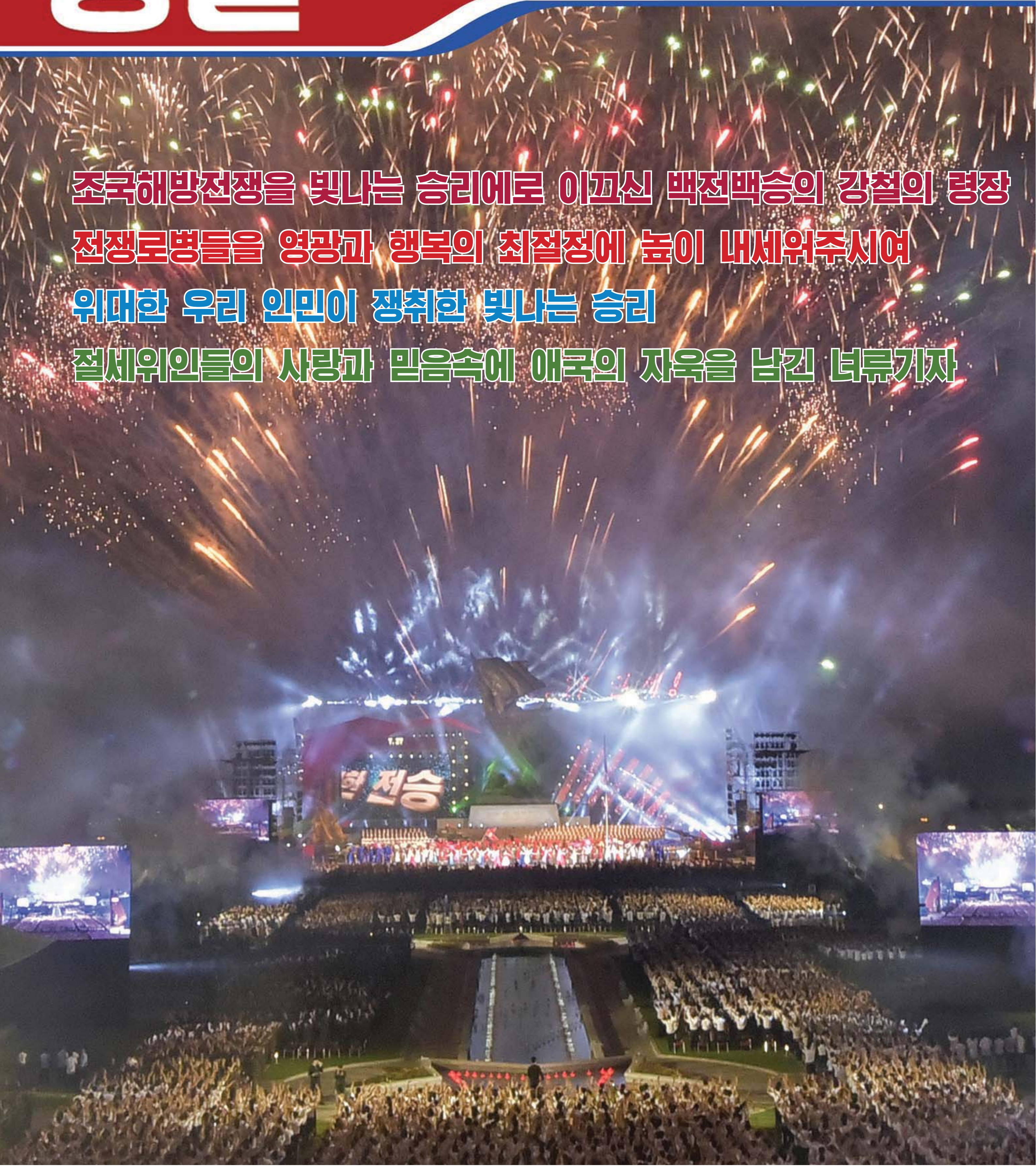
주체111(2022)년
(7－8월)
4호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전쟁로병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시여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애국의 자욱을 남긴 녀류기자



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4호 (7 －8월)

절세의 위인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4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진행 1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20
전쟁로병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시여 2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3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3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9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40

소 식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뜻깊게 경축 54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청춘의 희열과 랑만 58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60

공화국의 현실

두뇌전, 탐구전을 맹렬히 벌려 62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제고를 위해 68
교육자양성의 원종장 사리원교원대학 74
방역전쟁에서 승리한 평양의 8월 78

인물소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애국의 자욱을 남긴 녀류기자 84
단나무와 함께 15년 86
정보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 88
해님의 축복을 받은 승마애호가소녀 90

조선의 명승

박연폭포 92

남조선 각지에서 반미, 반전, 반《정부》투쟁기운 고조
《전쟁연습중단!, 미국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 96

표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뒤표지: 개선문의 야경

편집: 리대성, 정철성, 조국성

승리의 7.27은 영원하리라!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뜨겁게 굽이치는 7월.

절세위인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전승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을 기적적승리에로 이끄시여 횡포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자 전체 인민과 군대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전사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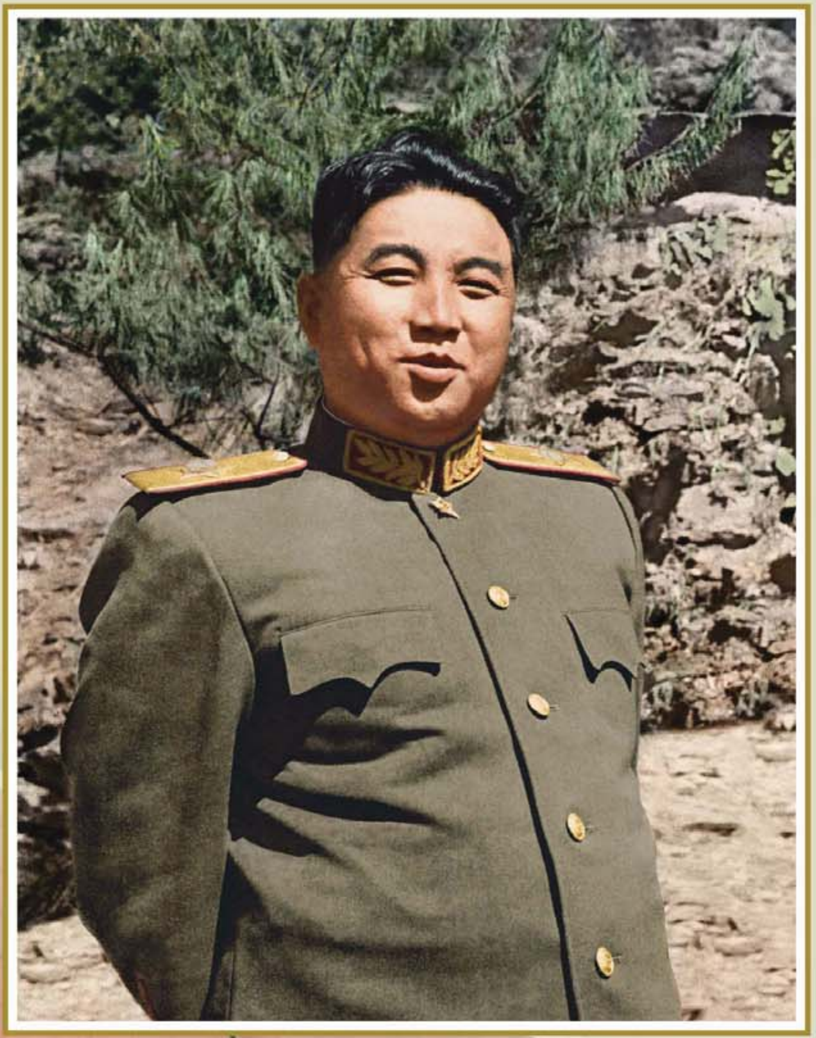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 전선에서의 련속타격과 포위섬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제2전선의 형성과 위력한 총반공격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그리고 야간전과 갱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운동, 산악지대에서의 포병화력의 집중적리용, 이동포병중대활동과 같은 전법들은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군사적예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전쟁의 매 계단마다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부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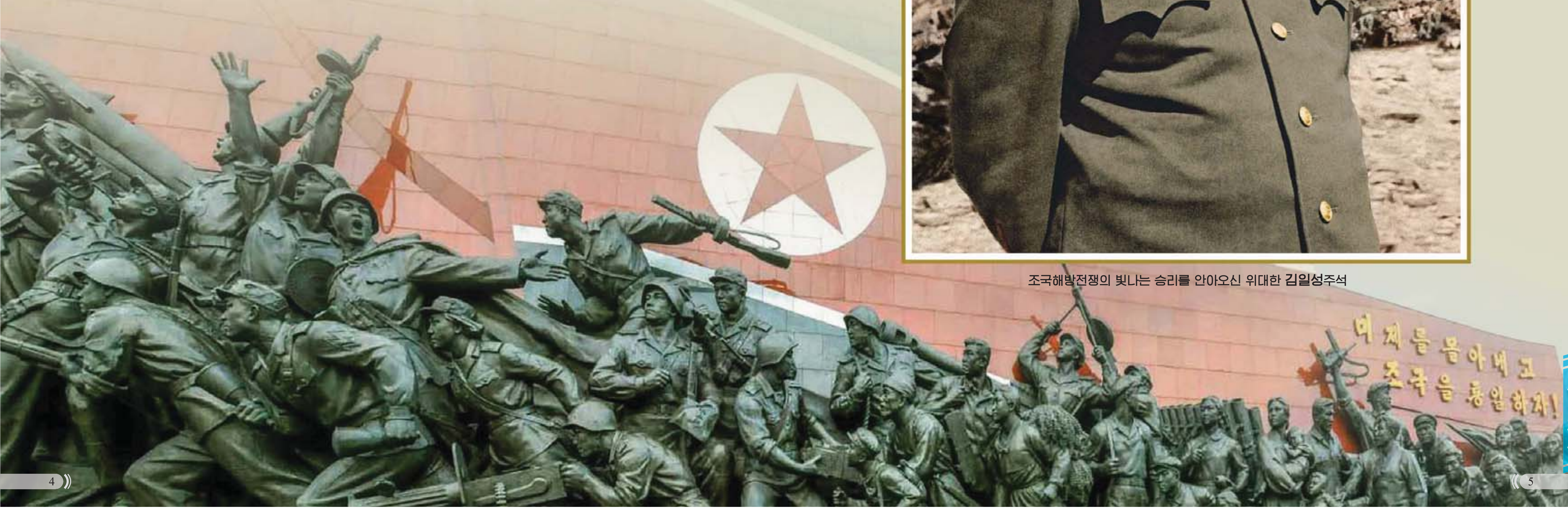
세계전쟁사에는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로 이름을 날린 명장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군대를 이끌어 강대한 침략세력을 쳐물리치신 걸출한 령장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군사적지략, 비범한 령군술로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은 세대와 년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39(1950)년 6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 접한 우리 인민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전쟁에 총궐기하였다.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40(1951)년 6월

력사에 길이 남을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보도들

- 조국해방전쟁시기 《로동신문》에 소개되였던 기사들중에서 -

영웅적인민군대의 맹진공에 반동의 아성은 무너졌다!

6월 28일 이른새벽!

서울시해방의 총진공은 개시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홍수처럼 서울시가로 중심지로 돌입하여 시내의 곳곳을 차지하였다.

…

조선인민군대 기계화부대 장병들의 만세소리가 서울시가를 진동한다. 우리 인민군대의 승리를 고하며 서울시인민들의 해방을 알리는 공화국기가 서울 리승만괴뢰정부 《중앙청》 상공에 찬연히 휘날린다.

오전 11시 30분! 서울시는 우리 인민군대 장병들의 영웅적인 전투와 고귀한 피에 의하여 드디여 해방되였다. [주체39(1950)년 7월 3일부]

대전에서 일대 포위섬멸전

저항하는 미국군대를 격파분쇄하면서 일로남진을 계속한 인민군부대들은 대전에서 미군 제24사단무력을 포위섬멸하고 20일 12시 대전을 완전히 해방시키였다.

…

아군부대들에 완전히 포위당한 적군은 사단장 띤을 선두로 하여 최후의 반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들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수십대의 땅크와 전 사단의 병력을 투입하여 감행하여온 놈들의 반공격은 인민군부대들의 맹렬한 소탕전에서 분쇄되고 적의 주력부대는 완전히 포위섬멸되고말았다. … [주체39(1950)년 7월 23일부]

수뢰정대의 위훈

우리의 어뢰정들은 적의 포화를 뚫고 적순양함의 800~1 000m거리까지 육박하였다.

바로 그때 《어뢰 발사!》라고 김군옥정대장은 명령을 내렸다. …

발사한 어뢰는 적순양함 기체에 명중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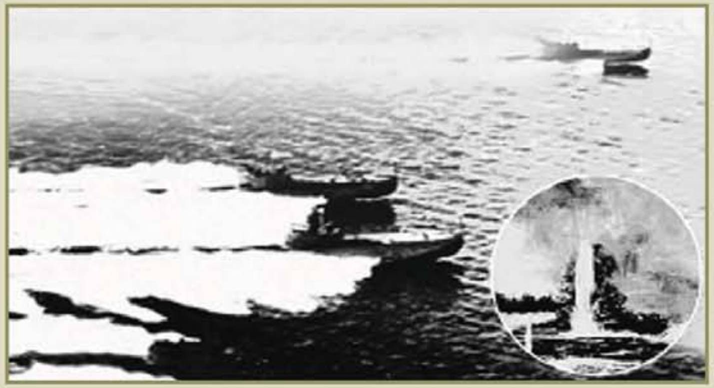
적순양함은 두발의 어뢰를 맞았으나 아직도 연막속에서 사방으로 미친듯이 사격하였다. …

그러나 우리의 어뢰정은 노도를 헤치며 비발치는 적의 포화를 뚫고 적함에 육박하였다. …

최고의 속력을 내여 결사적으로 적순양함 500m지점까지 육박하여 적함에 마지막어뢰를 발사하였다.

적함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수면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주체39(1950)년 7월 28일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간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의 무리들을 호되게 후려갈기며 남으로 진격하였다.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42(1953)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종합전과

적살상 및 포로 156만 7 128명
그중 미제침략군 40만 5 498명
괴뢰군 113만 965명
추종국가군 3만 665명

적 전투기술기재
비행기 로획 11대, 격추 5 729대, 격상 6 484대
땅크 로획 374대, 격파 2 690대
장갑차 로획 146대, 격파 45대
자동차 로획 9 239대, 격파 4 111대
함선격침 및 격파 564척
각종 포 로획 6 321문, 격파 1 374문
각종 저격무기 로획 92만 5 152정
각종 통신기재 로획 5 788대
화염방사기 로획 117정
각종 포탄 로획 48만 9 000여발
각종 탄환 로획 2 124만 5 000여발
각종 수류탄 로획 22만 4 000여개
각종 지뢰 로획 1만 4 400여개

*《지난 조선전쟁은 **김일성**장군의 전법에 의하여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장성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직된 전쟁으로 특징지어진다.*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얼마나 유명한지 3년간의 전쟁에서 그 전법에 걸려 패한 죄로 여러명의 <유엔군>사령관들과 미8군사령관들이 교체되였다.*
마지막에는 들이밀 장성들이 없었다.》

- 미국의 비밀보고서중에서 -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42(1953)년 8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을 현지지도하신 단위수와 거리

1계단 주체39(1950).6.25–주체39(1950).9.15.
단위 86개 거리 4 511Km(11 277.5리)

2계단 주체39(1950).9.16–주체39(1950).10.24.
단위 62개 거리 429.2Km(1 073리)

3계단 주체39(1950).10.25–주체40(1951).6.10.
단위 316개 거리 5 152.5Km(12 881.25리)

4계단 주체40(1951).6.11–주체42(1953).7.27.
단위 611개 거리 12 650Km(31 625리)

총단위 1 075개 총거리 22 742.7Km(56 856.75리)

수 예

《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주석이 올린 선물

주체42(1953)년 10월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별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일간의 회의와 3일간의 실무강습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의 당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힌 강령적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별강습회 폐강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이 우리 당을 강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조직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서 기본견인기, 주축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특별강습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직진행된 전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위대한 승리와 성공에로 줄기차게 견인하는데서 중대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시대와 력사우에 떠올리시고 우리 당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대계의 조직사상적 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무상의 신임과 영광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투쟁행정에서 당의 심장부서, 신경부서 일군으로서의 전투적사명과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을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강위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전쟁로병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시여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합니다.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번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김 정 은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전승절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승세대와 그 후손들이 터치는 우렁찬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열광넘친 환호가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발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전승 69돐을 환희롭게 장식한 기념행사는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반제반미투쟁의 대승리, 7.27의 기적이 새겨주는 필승불패의 진리를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당중앙의 향도따라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의 부흥강국으로 더욱 긍지높이 떨쳐갈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만세!

소년빨찌산의 노래

얼씨구나 승리봉우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위대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례없이 가렬처절하였던 혁명전쟁에서 피어린 군공으로써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조국수호와 혁명보위, 계급성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기둥이 되여주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다시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후손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세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조국강토를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자기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헤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전통으로 빛나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전승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조국수호, 전민항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이고 신생조선의 영용성과 강대성의 기틀을 다져놓은 력사적사변으로서 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제일자산, 필승불패의 든든한 밑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이 강대해질수록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위훈으로 자주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혁명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순간도 잊지 말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민, 전군이 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기적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동의 위업을 위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위훈과 공적은 불멸할것이며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격난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발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성지를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사상의 전초병, 근위병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강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은 당의 전승령도사를 대중에게 체득시키는 직접적담당자, 핵심들이라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견결한 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적지관리사업과 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8월 10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개괄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시였으며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고 호소하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동체로 뭉쳐 력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한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 정 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기간 당과 정부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악성전염병과의 방역전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과학자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전구들에서 힘과 지혜와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며 분투, 활약한 방역, 보건전사들은 전화의 나날 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화선용사들과 다를바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룩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투쟁에서 배가의 성과를 내는것으로써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국의 줄기찬 전진발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당중앙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준엄한 보건위기를 타개하고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한 력사적인 날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며 전인민적인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온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최대비상방역전의 값비싼 승리를 새로운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승화시켜 국가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8일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수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하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군대라는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떳떳한 미더운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방역투쟁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전투원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8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함께 4.25문화회관광장에서 우리 당과 국가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함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격동적인 축하연설을 받아안은데 이어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가 선포된 력사적인 장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열광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미덥고 끌끌한 화선군의, 전투영웅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선봉에서 평정하며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과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을 결사보위한 당중앙별동대원들의 혁혁한 공훈은 방역대전의 승전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속에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로병대회

7. 27경축행사에 전승세대를 대표하여 초대된 로병들이 비행기와 렬차, 뻐스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7.27.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뜻깊게 경축

공화국에서 위대한 전승 69돐을 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미제를 때려부시고 전승을 안아오시였으며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전쟁로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의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제8차 전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청년학생들의 야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들과 경축공연, 경축무도회가 펼쳐져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귀빈으로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평양시민들

전쟁로병들이 전승 69돐경축 청년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서 새세대들에게 공화국기발을 넘겨주었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이어갈 드높은 열의가 맥박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가 진행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청년절

지난 8월 28일 각지에서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청년절을 맞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아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시며 주체적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이날 온 나라의 방방곡곡은 청년들의 환희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의 대합창공연 《태양의 청춘》이 진행되였고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청년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도 있었다.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는 경축의 춤바다, 환희의 꽃바다가 펼쳐지고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청년절경축 청년대학생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에서도 청년절경축 체육문화행사들이 있었다.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안악군 오국농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에 나가 청년들과 함께 명절을 뜻깊게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진행된 청년대학생들의 대합창공연 《태양의 청춘》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청춘의 희열과 랑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경축하였다.

청년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의 한 장면

청년절경축 청년대학생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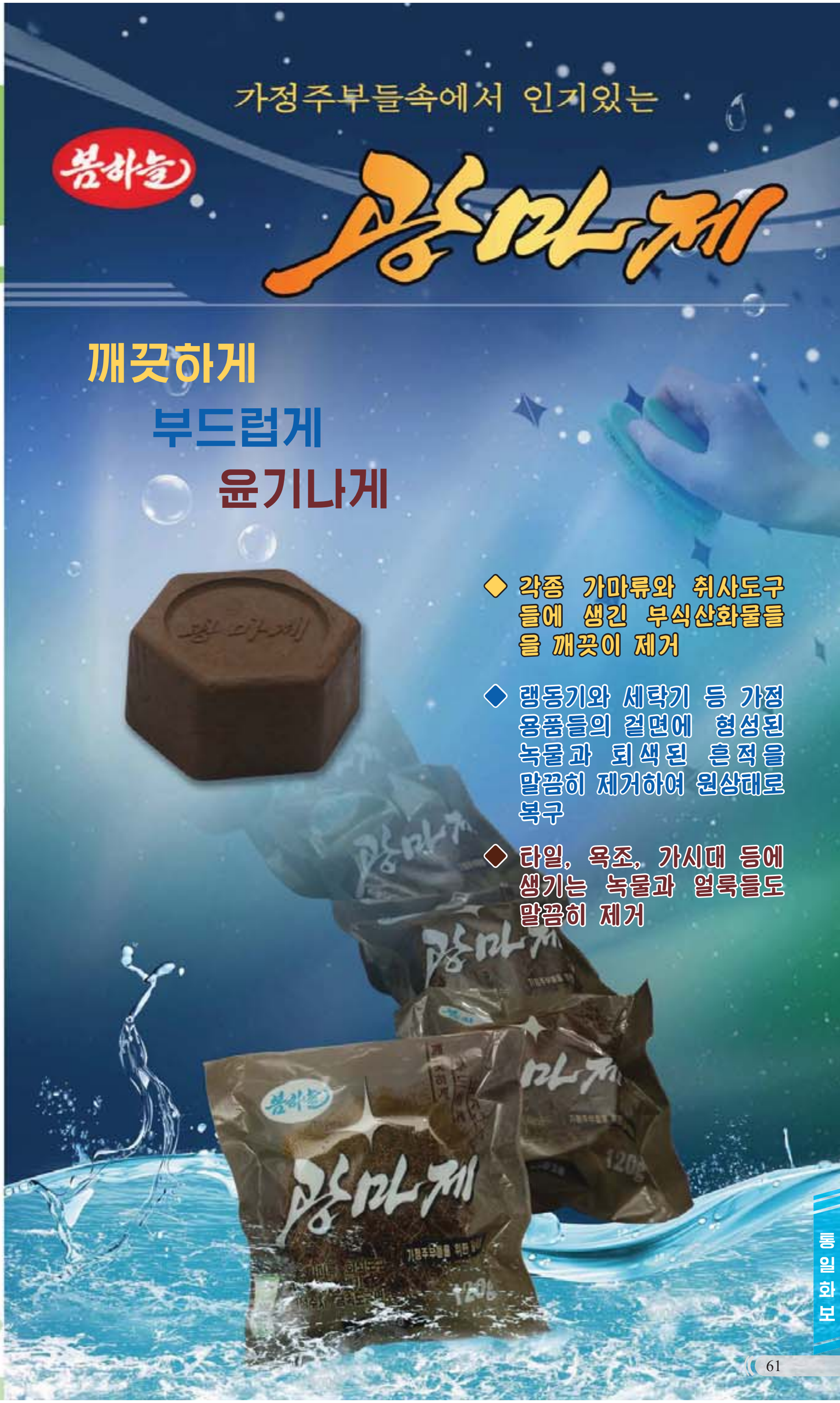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지난 8월 2일부터 12일까지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소비품생산단위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쓰기에 편리한 각종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신발, 지은옷, 화장품, 이불류들과 특허제품들,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2 300여종에 38만 9 000여점의 인민소비품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전시회에서는 자기의 제품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질제고와 원가저하, 새 제품개발 및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사진 라춘송, 글 윤금철



두뇌전, 탐구전을 맹렬히 벌려

—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응용기술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 —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불리한 이상기후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새 품종의 농작물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유전자공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고심어린 노력으로 낮은 온도와 가물, 염기에 견디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벼품종들을 육종해냈으며 세포공학연구실에서도 역병견딜성이 강하고 정보당 소출이 높은 붉은감자1호를 육종한데 이어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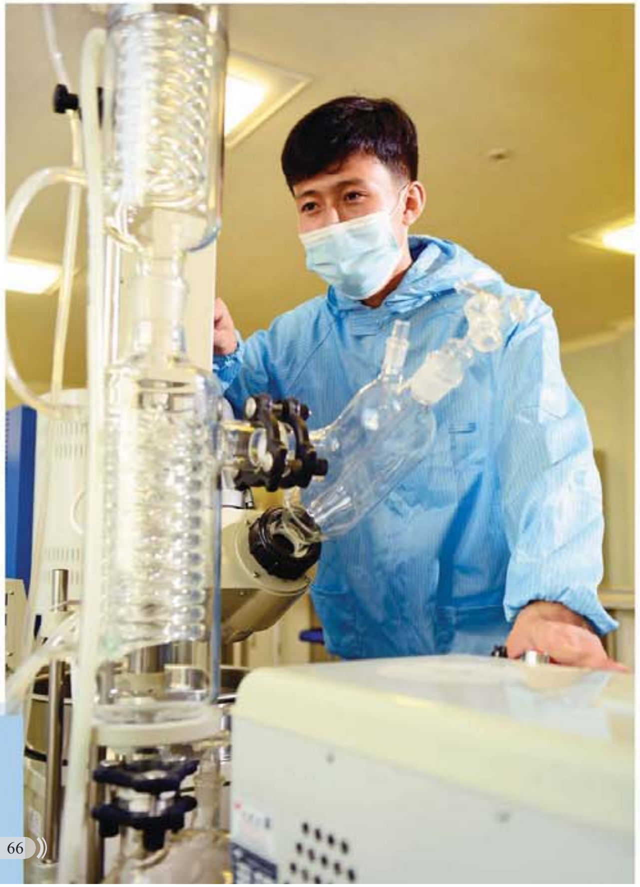
나노공학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응용기술연구소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나노기술들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금속, 기계, 건축, 물리화학, 생명, 환경 등 여러 나노응용연구실들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되고있는 가치있는 나노과학기술성과와 제품들은 이곳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에서 세계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는 첨단기술제품연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이곳에서는 대학생들이 자기가 구상하고 설계한것들을 생산실천을 통해 검증해보며 앞날의 개발창조형인재로 자라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현실적의의가 큰 각종 첨단제품들이 여러 생산구역들에서 개발되고있다.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제고를 위해

— 평양양말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

평양양말공장에서 최근 제품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이 공장에서는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20여건의 새 도안을 창작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남녀양말들과 어린이양말, 체육인양말 등 새로운 형태와 종류의 각종 양말들을 대량생산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다종화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형태와 무늬, 색갈이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있다.

정연하게 세워진 원격교육체계를 통하여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늘여 방직과 염색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연창대직기, 쟈카드직기(무늬직기), 정경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현대화함으로써 이 공장에서는 지금 인민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수건들이 수많이 생산되고있다.

다양화

백학

질제고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치약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공장의 치과위생용품연구소에서는 일반치약의 백색도와 맛과 냄새를 개선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여러가지 기능성치약들과 치료용치약생산에 필요한 천연재료들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교육자양성의 원종장
사리원교원대학

공화국에서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중시되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중요한 임무로부터 몇해전 평양교원대학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본보기대학으로 일떠선데 이어 각 도들의 교원대학 현대화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얼마전 사리원교원대학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여 준공하였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교원들로부터 강의를 받을수 있는 전자도서관과 교정을 나서는 대학생들

자연실험실

외국어강의실

가상환경실

음악실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어머니교실로 되여있는 어린이지능계발보급실들은 학생들이 실지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앞에서 교육하는것과 같은 가상교양체험체계를 리용하여 실천실기능력을 키울수 있게 꾸려져있다.

가상환경실도 자연 그대로의 환경조건과 립체연시기구를 통해 동식물들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질수 있게 현대교육과학과 기술이 도입되였다.

어머니교실

무용실기실

방역전쟁에서 승리한 평양의 8월

사상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승리자들의 긍지와 자부가 환희와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개선청년공원의 밤이다.

행복의 물결, 웃음의 파도가 출렁이는 물의 궁전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근로자들

중앙동물원과 상점, 식당, 거리들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밝은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가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미녀류기자 문명자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애국의 자욱을 남긴 녀류기자

— 재미녀류기자 문명자선생 —

위인흠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문명자선생

조국방문나날의 문명자선생

문명자선생은 오래동안 해외에서 녀류기자로 활동하며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중의 한사람이다.

1930년 남조선의 대구에서 태여난 선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부조리한 자본주의사회를 폭로하는 언론인이 되였다.

간결하면서도 분석이 예리한 글을 써내여 명성이 높았던 선생이 기자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애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것은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온 이후부터였다.

비록 사상과 정견, 신앙이 다르고 어지러운 과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수 있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선생은 머리가 숙어졌다. 여러 차례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는 과정에 가슴속깊이 자리잡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은 선생을 애국의 길에 나서게 하였으며 고령에도 애국의 필봉을 들고 문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어도 절세위인들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민족이 알고 력사에 기록되여 그 공적은 후세에 남게 된다는것을 선생의 한생은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글 윤금철

단나무와 함께 15년

— 락랑구역 승리3동 113인민반에 사는 리능석, 오봉화부부 —

많은 사람들이 락랑구역 승리3동의 리능석(71살), 오봉화(70살)부부가 사는 집을 가리켜 《단나무집》이라고 부른다.

이 집의 로인내외가 15년간이나 약용가치가 크고 도시록화에도 좋은 단나무를 널리 퍼치기 위해 심신을 바쳐오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단나무를 키울 결심을 품게 된데는 리능석로인이 단나무를 하루빨리 온 나라에 퍼쳐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시려고 마음쓰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심려를 한가지라도 풀어드리는데 여생을 바치리라.)

이후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아빠트주변의 빈땅에 10그루의 단나무모를 구해 정성껏 심었다. 이렇게 첫발을 뗀 그들은 아예 단층집으로 옮겨앉아 단나무를 애지중지 심어 가꾸기 시작하였으며 재배방법을 익히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걷기도 하였다.

이렇게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그들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해마다 정성껏 자래운 묘목들을 시안의 여러 학교와 단위들에 널리 퍼지게 하였으며 많은 단나무열매를 주변의 식료공장과 제약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언제나 호미가 들려있는 로인내외의 거쿨진 손들과 집안벽면을 채우다싶이 한 지원증서들, 단나무묘목을 보물인듯 안고 찍은 사진들은 이들이 걸어온 애국의 발자취를 새겨보게 하는 증표들이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 마을사람들과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단나무집 로인내외(가운데)

⇩ 학생들과 교정에 단나무를 심고있는 리능석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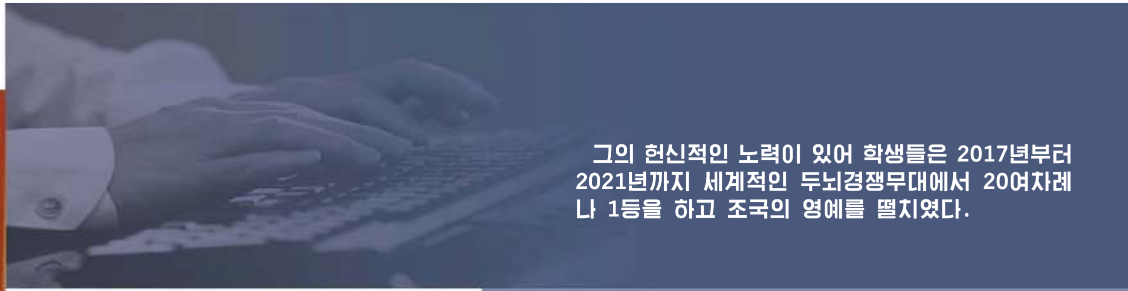
약용가치가 큰 단나무 열매

세계적인 천연건강식품

-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B_2, B_6, C, E, P, PP), 당분, 유기산 등 생리활성물질 포함
- 피줄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산화, 간보호작용
- 혈압, 혈당, 혈청지질을 낮추는 작용
- 찔광이에 비해 강심작용 10배이상

정보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

—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정보과학소조 지도교원 신창현 —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학생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적인 두뇌경쟁무대에서 20여차례나 1등을 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최근년간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인터네트 프로그람경연에 출전하여 여러 차례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데 기여한 신창현선생.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을 거쳐 교단에 선 그는 세계와 당당히 맞설수 있는 프로그람기술인재들을 키워낼 결심을 품고 자진하여 정보과학소조 지도교원이 되였다.

그는 시간을 쪼개가며 리산수학과 알고리듬리론분야의 최신자료들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훈련용프로그람과 난도높은 문제풀이방법들도 내놓았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소조의 학생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적인 두뇌경쟁무대인 《코드쉐프》도전경연에서 20여차례나 1등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능한 프로그람기술인재들을 육성하는 나날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올해 마흔살의 관록있는 교육자.

그는 오늘도 과학으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쟁쟁한 정보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윤금철

정보기술인재들을 키우는데 열정을 바쳐가는 신창현선생

해님의 축복을 받은 승마애호가소녀

— 중구역 류성소학교 학생 정수진 —

수진이는 지난 2019년 12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말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말도 잘 타고 공부도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라는 은정어린 말씀을 받아안은 복받은 소녀이다.

꿈만 같은 그날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수진이는 키도 크고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 자기의 장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안고 그동안 수진이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승마회원인 어머니와 함께 승마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어른들도 저어하는 오를로브종의 말을 타고 구보로 달릴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 최우등생으로 사랑받는 그의 나이는 11살이다.

해님의 따스한 축복속에 망울을 터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고있는 승마애호가소녀 수진이의 밝은 앞날이 기대된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은 정수진학생

⇧ 학급동무들과 지식의 탑을 쌓아가는 정수진학생
⇨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박연폭포

우리 나라 3대명폭포의 하나인 박연폭포는 개성시 북부 박연리에 위치하고있다.

폭포는 천마산과 성거산사이의 골짜기에서 쏟아져내리는데 그 높이는 37m이며 너비는 1.5m나 된다.

폭포우에는 너럭바위가 바가지모양으로 패워 이루어진 기묘한 못인 박연이 있고 그가운데 여러 사람이 앉을만한 크기의 선바위가 있다.

폭포밑에는 고모담이라는 못이 있고 그 기슭에는 룡바위라는 둥근 바위가 있다.

조선의 3대명폭포

관음사

룡바위우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이름난 녀류시인인 황진이가 쓴 글이 새겨져있으며 고모담의 서쪽언덕에는 폭포와 주변의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범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박연폭포명승지구역에는 고려시기에 쌓은 대흥산성과 성의 북문, 관음사, 대흥사를 비롯한 고적들도 있다.

녀류시인 황진이의 글이 새겨진 박연룡바위

대흥산성의 북문

범사정

남조선 각지에서 반미, 반전, 반《정부》투쟁기운 고조

《전쟁연습중단!, 미국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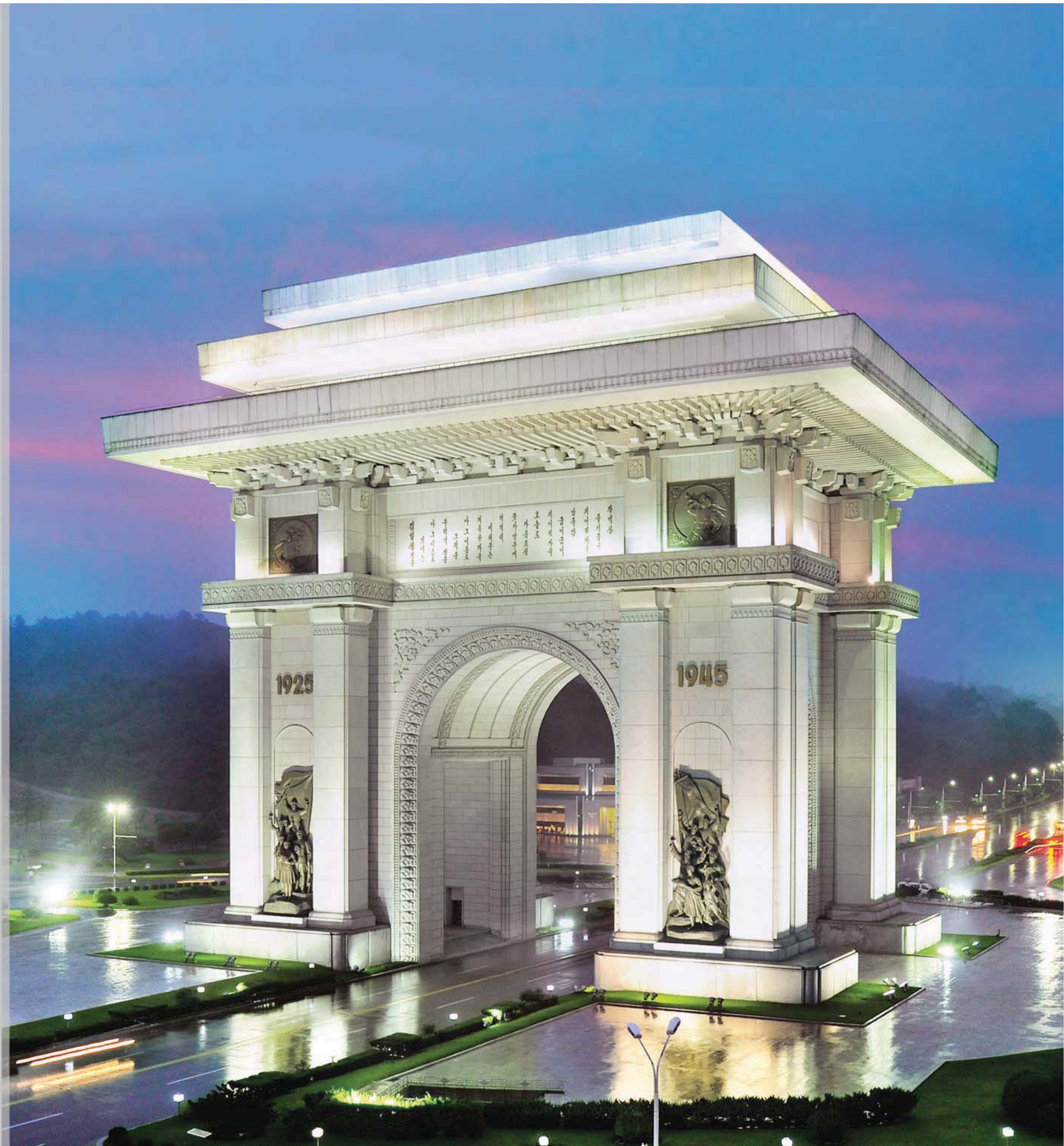
최근 남조선에서 각계층 단체들이 반미, 반전, 반《정부》투쟁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90여개 정당, 단체들은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내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조선반도의 전쟁기지화반대!》,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당장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녀성련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반전집회, 전쟁연습규탄집회를 열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고조시킬데 대한 내용의 공동결의문들을 발표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이라고 쓴 얼음조각을 망치로 부셔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시민의 명령이다. 한미일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들을 들고 행진을 하면서 미국에 추종하는 윤석열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는 미국과 윤석열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장본인, 평화의 교란자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48ㄷ

루계 411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